

어르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돕는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전주시, 동절기 건강 취약계층 노인 피해 최소화 위해 한파·대설 대비체계 강화

전주시가 최근 혼란스러운 정국과 연이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위태로운 지역경제를 시급히 지원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25년 새해에도 겨울철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동절기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 등과 연계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식사 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통해 모든 노인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먼저 시는 한파와 대설로 인한 취약노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대설 대비체계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한파특보 및 대설특보가 발령될 경우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관이 협력해 보호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구호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된다.

또한 시는 보호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SNS와 재난문자(CBS) 등을 활용한 대피소 운영 및 국민 행동 요령을 알리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

관 등 372곳을 한파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한파에 취약한 노인들이 가까운 한파 쉼터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난방기, 온열기 가동상태, 소화장비 및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하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동시에 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인력(간호사)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문간호사 13명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5295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 △필요시 가정 방문 및 혈압, 당뇨 측정 △한파시 필요한 건강관리법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노숙인시설을 한파 응급 대피소로 지정해 한파 대책 기간 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이 불·패드 등의 방한용품 핫팩 5500개를 구입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응급 잠자리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취약 노인의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을 바탕으로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파 대비 행동요령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의 백미 기탁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완산지구협의회 · 창해 예탄을, 100포 전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동장 김용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완산지구협의회(회장 박현희), 창해 예탄을(대표 이연희)이 백미 100포(100kg)를 기탁

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완산지구협의회, 창해 예탄을에서 신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민관협

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서로 돕는 중화산 2동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완산지구협의회 박현희 회장은 “창해 예탄을과 함께 기부한 백미가 어려운 이웃들이 풍족하고 따스한 설날을 맞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태 중화산2동장은 “어려운 이웃

들을 향한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회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완산지구협의회는 매년 사랑의 빵나눔기, 김장봉사, 희망풍차 물품전달, 이마음 봉사, 연탄봉사 등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시설 정비 · 근로자 환경 개선 등 위해 3억1300만원 투입

전주시가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주기 시작했다. 시는 올해 총 3억1300만 원을 투입해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정비와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로 19년째 해마다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유지·보수비용과 더불어 공동주택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경과연수에 관계 없이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건축과에 지원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노후 정도와 단지 규모,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충분한 예산과 사업량 확보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복지하우스 인테리에는 지난 3일, 새해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 200상자(320만 원 상당)를 여의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전주 부자하우스 인테리어, 김 200상자 기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부자하우스 인테리어(대표 이무성)는 지난 3일, 새해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 200상자(320만 원 상당)를 여의동주민센터(동장 김종남)에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물품은 관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홀로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자하우스 인테리어 이무성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

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남 여의동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 부자하우스 인테리어에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사랑과 온정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자하우스 인테리어는 작년에 도 라면 100개를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